



스트리트 라이트 페인팅 아티스트 로이 왕의

'THE DRAGON OF TIME'

정밀함과 정확성의 예술을 기념하기 위한 예거 르쿨트르

MADE OF MAKERS 프로그램의 새로운 예술 협업

주요 특징:

- 오랜 전통의 현대적인 재해석: 빛과 사진의 경이로운 만남
- 라이트 페인팅으로 제작한 실험적인 사진 3 장과 스톱 모션 영상 1 편
- 실물 크기의 형태를 초소형 손목시계 크기로 줄이는 도전

예거 르쿨트르가 Made of Makers 프로그램의 최신 협업으로 탄생한 중국 출신의 스트리트 라이트 페인팅 아티스트 로이 왕의 작품을 공개합니다. 약 200 년 전 창립 이후 그랑 메종의 핵심 가치였던 정밀함과 정확성 추구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 제작된 이번 작품은 라이트 페인팅 사진 3 장과 스톱 모션 영상 1 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 월 7 일부터 19 일까지 두바이에서 개최되는 '정밀함과 정확성의 선구자' 전시 개막일에 맞춰 최초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위치메이킹과 예술 사이의 교류 확장

예거 르쿨트르는 위치메이킹 이외 분야의 아티스트와 디자이너, 장인들과의 협업 시리즈인 'Made of Makers'를 통해 위치메이킹과 예술 간의 교류를 확대해 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랑 메종의 가치인 창의성과 전문성, 정확성을 공유하며 예상을 뛰어넘는 다양한 소재와 매체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예술적 표현을 탐구하는 아티스트에게 집중합니다. 그랑 메종의 위치메이커와 마찬가지로, 아티스트와 혁신가들은 그들의 창의적 토대이자 선구적인 작업을 위해 과거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Made of Makers 커뮤니티는 현대 미술 및 미식, 음악 분야를 아우르고 있으며, 아티스트 지문(스위스)과 마이클 머피(미국), 기욤 마망(프랑스), 레터링 아티스트 알렉스 트로슈(스페인/미국),



페이스트리 셰프 니나 메타예(프랑스), 믹솔로지스트 마티아스 지루(프랑스), 디지털 미디어 아티스트 강이연(한국), 뮤지션 토키오 마이어스(영국), 멀티 미디어 아티스트 브랜디 웨딩거(미국) 등 다양한 이들과 함께해 왔습니다. 2024년에는 셰프 히만슈 사이니(인도)와 로이 왕(중국)과의 협업을 선보입니다.

스트리트 라이트 페인팅 아티스트: 후대를 위해 포착한 찰나의 순간들

시각을 압도하는 역동적인 작품을 선보이며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로이 왕은 사진에 빛과 움직임을 활용하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나갑니다. 베이징 출신으로, 2009년 대학을 졸업한 후 프로 럭비 선수가 되기 위해 중국을 떠나 일본에 진출한 그의 남다른 경력과 경험은 작품이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에서 풍부한 영감이 되어줍니다. 그에게는 새로운 나라를 여행하면서 어디든 카메라를 들고 다니기 시작했고, 꾸준히 촬영하면서 사진 기술을 독학으로 익혔습니다.

어느 날 로이 왕은 1949년 파블로 피카소와 선구적인 *라이프(Life)* 매거진의 사진작가 온 밀리(Gjon Mili)가 협업한 흑백 사진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온 밀리가 셔터 속도를 낮춘 카메라를 사용하여 작은 손전등으로 공중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피카소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었습니다. 이 이미지는 로이 왕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쳤고, 바로 그날 밤 손전등을 들고 밖으로 나가 처음으로 라이트 페인팅에 도전했습니다.

로이 왕에게 있어 빛은 아티스트가 피사체를 비추는 빛의 효과를 포착하기 위해 노력하는 전통적인 사진이나 구상 미술과는 달리,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에서 피사체를 만드는 매개체입니다. 주로 도시를 배경으로 하는 그의 라이트 페인팅 작품은 중국 문화와 신화를 기반으로 대중문화의 도상과 캘리그래피적인 요소를 결합한 형태로 완성됩니다.

기술과 예술의 교차점에서 탐구하는 미지의 세계를 추구하다

태초부터 사람들은 어두운 밤하늘을 비추는 빛이 만들어내는 황홀한 풍경에 매료되어 불붙인 막대기를 손에 들고 허공에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그리고 사진이 등장하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이트 페인팅의 본질은 움직이는 빛으로 이미지를 '그리는' 예술 행위이며, 일반적으로 1분 이상의 장시간 1회 노출을 통해 카메라 렌즈에 그 과정을 담습니다.



로이 왕은 작업을 하는 늦은 밤이 되면 어둠을 캔버스 삼고 빛을 붓 삼아 카메라를 바라보고 어떠한 비주얼 가이드도 없이 허공에 이미지를 그립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이미지를 결과물인 사진으로만 확인합니다.) 비주얼 가이드가 없는 상황에서 그는 오로지 공간 기억과 근육 기억, 상상력에만 의존해야 합니다. 실제로 운동선수로 활동했던 그간의 경험이 예술 활동에 사용하는 근육 기억을 발달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작품을 만드는 동안 검은색 옷을 착용하여 어두운 주변 환경과 자연스럽게 동화되어 최종 이미지에서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드러나지 않습니다.

로이 왕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는 제 작업을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는 예술이라고 설명합니다. 머릿속에 그린 결과물을 재현해야 하지만, 카메라에 담기기 전까지는 작업물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작업 과정은 1~2 분 정도면 충분할 만큼 매우 빠르게 진행되지만 계획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미지와 그 이미지를 '그리기 위해' 취해야 할 정확한 제스처, 제스처를 담아야 하는 보이지 않는 '프레임', 프레임과 카메라 위치를 고려한 신체와 조명의 정확한 위치까지, 모든 요소들을 완벽히 계산해야 합니다. 빛이 만들어내는 효과는 그 즉시 사라지지만 사진을 통해 불멸의 존재가 된다는 점에서 라이트 페인팅은 매우 특별합니다."

최면을 거는 듯한 4 가지 예술 작품: 빛으로 표현된 파인 위치메이킹의 정밀함

로이 왕이 예거 르쿨트르와의 협업으로 제작한 스톱 모션 영상 한 편과 실험적인 사진 세 장으로 구성된 작품은 엄청난 난제였습니다. 초소형 시계 크기로 작품을 축소해야 했으므로 기술적 측면에서 상당한 변화를 주어야 했습니다. 먼저 제작에 필요한 정교한 패턴을 연출하기 위해 대부분 무브먼트 구성품처럼 작은 초소형 조명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두 번째로 전혀 다른 제스처를 구상해야 했습니다. 기존의 작업에서는 팔을 움직이거나 전신 동작을 사용했지만 이번 작업에서는 숙련된 위치메이커처럼 손과 손목의 미세한 움직임 하나까지도 완벽히 판단하고 정확히 제어해야 했습니다. 계획 과정도 까다로웠지만 새로운 제스처를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을 때까지 수많은 연습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작품을 제작하는 예술적 과정은 다방면에서 모든 예거 르쿨트르 시계에 내재된 철저한 준비와 정밀성, 기술적 지식과 예술적 감성과 닮아 있습니다.



사진 세 장과 스톱 모션 영상에서 로이 왕은 중국 문화에서 차용한 전통적인 요소에 발레드주 매뉴팩처를 방문한 후 시계 제작을 깊이 있게 관찰한 경험, 특히 매뉴팩처에서 확인한 정밀함과 정확성의 다양한 측면을 결합했습니다. 그는 형태와 컬러, 역동적인 라인을 자신만의 고유한 스타일로 풀어낸, 시각적으로 매혹적인 특별한 작품을 제작합니다.

- 龍(dá – *Flying Dragon*) - 아이코닉한 리베르소에 경의를 표하는 한자
- 叢(ruò – *All the Best*) - 듀오미터 워치 칼리버의 정교함을 기념하는 한자
- 燄(yì – *Burning Flame*) - 19 세기에 출시한 예거 르쿨트르의 포켓 워치에 경의를 표하는 한자

스톱 모션 영상 '*The Dragon of Time*(时光绘龙)'에서 로이 왕은 초당 수십 프레임으로 촬영한 사진 사이에 피사체를 조작하여 프레임이 합쳐지면서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를 일으키는 기술인 스톱 모션 애니메이션을 라이트 페인팅 기법과 결합합니다. *The Dragon of Time* 은 로이 왕의 시그니처 모티프 중 하나인 용을 사용하여 관람객들을 발레드주에 위치한 예거 르쿨트르 매뉴팩처의 광활한 풍경으로 안내합니다.

예거 르쿨트르의 CEO 인 캐서린 레니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로이 왕은 라이트 페인팅을 통해 Made of Makers 프로그램에 독창성과 흥미로운 호기심을 선사합니다. 다양한 분야와 문화에 걸친 장인 정신의 융합을 굳게 신뢰하는 예거 르쿨트르의 신념에서 탄생한 Made of Makers 프로그램은 예술계와 그랑 메종 사이에 존재하는 강한 유대감을 기념합니다. 그랑 메종은 로이 왕처럼 계속해서 예술가의 비전을 확장하는 아티스트와 협업을 진행해 나가며 정밀함과 정확성, 창의성, 열정이 교차하는 미지의 영역을 탐험합니다."



로이 왕 소개

베이징 태생의 라이트 페인팅 아티스트 로이 왕(왕시보)은 세계 각지에서 빠르게 인지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2009 년 대학을 졸업한 후 일본에서 프로 럭비 선수로 활동하며 사진을 향한 열정을 쌓아 나갔습니다. 1949 년 피카소와 사진작가 온 밀리(Gjon Mili)가 협업한 라이트 페인팅 사진을 우연히 접하면서 라이트 페인팅이라는 예술 형태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로이 왕은 비주얼 가이드 없이 오로지 공간 기억과 근육 기억, 상상력에만 의존하여 어둠을 캔버스 삼고 빛을 붓 삼아, 카메라 렌즈를 통해 포착한 시각적으로 매혹적인 특별한 작품을 제작합니다. 그는 중국 문화를 기반으로 대중문화의 도상과 캘리그래피적인 요소를 결합한 작품을 선보이며 다른 이들에게도 자신이 바라보는 세상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합니다. 리히트팩토르(LichtFaktor), 프로도 DKL(Frodo DKL), 대런 피어슨(Darren Pearson)과 같은 아티스트의 영향을 받아 대규모 프리핸드 라이트 드로잉을 기반으로 자신만의 고유한 스타일을 발전시켰습니다. 2023년에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동시에 라이트 드로잉으로 거대한 이미지를 만들며 자신이 세운 기네스 세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Made of Makers 소개

Made of Makers 프로그램은 워치메이킹 이외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 디자이너 및 장인 커뮤니티를 한자리에 모읍니다. 시계 제작과 예술 사이에 존재하는 교류를 확장하는 이 프로그램은 항상 그랑 메종을 정의하는 핵심 원칙인 창의성과 전문성, 정밀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프로그램은 그랑 메종의 가치를 공유하며 종종 예상을 뛰어넘는 다양한 소재와 매체를 통해 새로운 표현 형태를 탐구하는 세계적 수준의 크리에이티브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매년 프로그램을 통해 의뢰되는 새로운 작품들은 예거 르쿨트르가 전 세계에서 개최하는 전시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선정된 주제를 확대함으로써,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고 예술, 공예, 디자인에 대한 더욱 풍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jaeger-lecoultre.com